

# 2009 Techtextil 섬유기술전시회 참관기

김 홍 제 · 한국봉제기술연구소

2009 Frankfurt Techtextil 섬유기술전시회가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섬유기술전시회는 2년에 한번씩 열리는 대규모 섬유전시회로서 세계 섬유시장의 기술개발동향 및 섬유소재와 제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본 전시회는 섬유소재, 관련 기술 및 제조기기, 표면처리 기술 및 제품, 타기술 융합 기술 및 제품, 환경보호 및 리사이클링 정보/기술 등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명실상부한 섬유기술 및 제품의 종합전시회라 할 수 있었다. 더구나 이번 섬유기술전시회를 참관하게 되어 세계 섬유시장의 변화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였으며, 또한 전시회를 통해 세계 최대 섬유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유럽 및 미국 등의 섬유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먼저 이번 2009 Frankfurt Techtextil 섬유기술전시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행사명 : Techtextil Frankfurt 2009
- 개최기간 : 2009년 6월 16일(화) ~ 6월 18일(목)
- 개최장소 : 독일 프랑크푸르트, Messe Frankfurt(Frankfurt am Main)
- 전시규모 : 1,201개 업체(43개국, 23,300명) 참가, 25,704 m<sup>2</sup>, 9개 파트
- 전시품목 : 각종 직물 및 섬유소재, 관련 기술 및 제조기기, 표면처리기기 및 기술, 특수 섬유소재의 의복 및 신발, IT 융합 스마트 섬유제품, 특수섬유소재로 만든 가구, 관련 환경보호 및 리사이클링 정보/기술, 기타

Techtextil Frankfurt 2009는 이번이 13번째 개최된 Techtextil 섬유기술전시회로 Avantex 심포지엄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테크니컬 텍스타일과 부직포, 그리고 의류용 소재 및 관련 섬유기술 등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43개국 1,201개 업체가 전시업체로 참가했다. 참관객 수는 약 23,300명으로 2007년 Techtextil 섬유기술전시회보다 약 2% 증가하였으며, 전시업체도 약 8% 증가했다. 전시업체 동향 중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 섬유전시회에서 많은 참가율을 보였던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권 국가들 보다는 유럽지역의 대규모 메이커 회사

들의 참여가 많았으며, 본 전시회에서는 총 9개의 큰 카테고리(세부 24개 분야)로 각 아이템별로 전시관을 구성하여 관심 분야별 참관객의 참관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섬유류 전시회와는 달리 이벤트 특성보다는 상품 및 기술 설명에 초점을 두어, 비즈니스 상담이 주를 이루며, 자유로운 참관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참관객들의 관련기술 문의 및 기술동향 파악이 손조롭게 하였다.



Figure 1. 2009 Techtextil 전시회 안내문 및 전경.

특히, 테크니컬 텍스타일 전시회인 Techtextil과 어패럴 텍스타일 전시회인 Avantex를 동시에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최신 기술 및 제품들을 선보였으며,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섬유방사, 가공, 복합재료 및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IT 융합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전시회를 참가한 많은 업체들이 기술적인 혁신을 시도하기 보다는 기존의 기술을 재경비하는데 그쳐 신기술 또는 신제품에 대한 설명보다는 기존 기술의 향상 또는 현재 세계시장 트렌드에 맞는 형태로 구성된 제품을 선보여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다. 그러나 기타 일년에 한번씩 또는 그 이상 개최되는 섬유전시회 보다는 기술 심포지엄 등을 통해 훨씬 더 혁신적인 전시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이번 전시회는 복합재료, 섬유재료 기능화기술, 인간 건강 및 복리향상을 위한 신섬유 및 제품, 건축용/수송용/토목용 등의 산업용 섬유 및 스마트섬유 등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으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환경 친화적 특성을 강조하는 기술 및 제품이었다. 이는 친환경적인 마인드를 지닌 소비자의 증가 및 국가 규제 강화 등에 의해 Eco-green에 대한 관심이 테크니컬 텍스타일 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었고, 많은 업체들이 그 경향에 부합하는 변화를 선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특히, 스위스의 Schoeller의 self-cleaning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nano-sphere 등의 친환경 기능성 소재가 많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2007년 Techtexil 섬유기술전시회에서 중요한 테마로 집중 받았던 wearable electronics와 intelligent textile은 2009 Techtexil 섬유기술전시회에서 여전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wearable electronics는 관람객의 관심에 비해,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보다는 기존의 기술(섬유센서를 이용한 신체의 체온, 심장 박동수 등의 모니터링)을 응용한 정도에 그쳐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그 외, 고강도/고내열성 섬유 및 필터 등에 대한 소개가 많았으며, 전기방사 등의 나노섬유 기술 소개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2009 Techtexil 섬유기술전시회는 참가 업체 및 관람객 수가 매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술의 진보에 있어서는 약간 더딘 감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up-stream부터 down-strea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섬유소재/기술 및 제품, 기계 등을 선보이면서 섬유전반의 기술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본 전시회를 통

해 섬유 시장이 용도별로 세분화됨은 물론, 기능성을 추구하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제품의 방향을 일반제품 또는 특수 제품으로 분리하여 시장경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 섬유시장도 세계시장 변화에 발맞추어 시장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각 제품의 시장 특성과 소비자 성향에 맞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았으며,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으로 보였다. 또한, 국내 섬유산업의 발전 및 국외 시장 개척을 위해 섬유원사에서 염색/가공, 봉제/패션에 이르기 까지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고, 시장 니즈에 맞는 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 김 흥 제 -----

1995. 인하대학교 섬유공학 졸업  
1997. 인하대학교 섬유공학(석사)  
2004. 경북대학교 섬유시스템공학(박사)  
1997-2007.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2007-현재. 한국봉제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  
e-mail : dockim@sewtec.re.kr